

강진군 국내 최대 규모 민화대전 연다

청자촌 내 한국민화뮤지엄 주관... 총상금 3500만원
학생부 내달 2~10일, 일반부 6월 1~10일 작품 공모

강진군 청자촌 내 한국민화뮤지엄이 국내 최대 규모인 '대한민국민화대전'을 연다. 한국민화뮤지엄은 "학생부(초·중등)와 일반부를 대상으로 제3회 대한민국민화대전 참가작품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민화대전은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인 민화의 계승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강진군 주최, 전남도·전남도교육청 후원, 한국민화뮤지엄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화공모전이다. 학생부의 경우 초등 부문은 4월지 또는 8월지에 전통 및 창작 민화를, 중등 부문은 4월지에 전통 및 창작 민화를 출품하면 된다. 또 일반부 민화 부문은 전통 및 창작

민화를, 공예 부문은 민화를 활용한 공예품을 출품하면 된다. 공모신청기간은 학생부 5월 2~10일까지, 일반부 6월 1~10일까지며, 출품신청서와 작품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강진군 청자촌 내 한국민화뮤지엄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신청서는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 조선민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민화작가, 교수 등 총 5명의 심사위원들이 전통성, 창작성, 예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학생부는 5월 19일, 일반부는 6월 23일 강진군 및 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

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7월 29일 강진청자촌제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3500만원이다. 학생부는 대상 3명에 전남도지사상과 상품이, 최우수상 6명에는 전남도교육감상과 상품이, 우수상 9명에는 강진군수상과 상품이, 장려상 40명과 특선 60명, 입선자 모두에게 한국민화뮤지엄관장상이 주어진다. 일반부는 민화, 공예부문을 합해 대상 1명에게 전남도지사상과 상금 1000만원이,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강진군수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우수상 3명에게는 민화 부문과 공예 부문에 각각 강진군 의회의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장려상 10명과 특선 20명, 입선자 모두에게 한국민화뮤지엄 관장상이 주어진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화뮤

지엄 홈페이지(minhwamuseum.com) 또는 전화(061-433-9770~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민화뮤지엄은 또 지난 1월부터 열렸던 안산민화협회 특별전에 이어 강효진민화연구소 회원의 작품으로 세화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은 '붉은 닭의 기운'으로 새해를 맞는 민화展'을 주제로 오는 7월 28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민화뮤지엄은 최근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란도란, 나의 박물관 이야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박물관협회 주관으로 학교교육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박물관 소장품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장흥지역 인구 3400여명 줄었는데 일반음식점 10년만에 2배 늘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경기불황이 장려되는 상황에서 장흥지역 내 식품점영업소는 10년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식품점영업소는 365개에서 10년후인 올 3월말 현재 무려 360여개(매년 평균 36개업소)가 늘어난 724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식당)이 지난 2007년에 286개에서 올 현재 570개로 늘어나 도시권의 경기침체의 폐업현상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일반음식점이 늘어난 데는 다양한 먹거리가 개발되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성향이 도시민들과 같이 가족단위와 모임이 늘면서 외식위주로 생활패턴이 바뀌어 음식점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장흥지역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매 주말마다 열리는 '정남진토요시장' 개장으로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을 겨냥해 소고기 전문 음식점이 들어선 것도 음식점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통상 일반음식점은 적은 자본력으로 특별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업종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장흥군 인구는 지난 2007년에 4만3468명에서 올 3월 말 현재 3400여 명이 줄어든 4만74명으로 겨우 4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벼 품종 단일화 사업 착수

고품질 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급 경쟁력 높이기

강진군이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고품질 쌀 계약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도시 소비층의 소비성향에 발 맞춰 그동안 강진군에서 재배해 검증된 품종 중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강진군 통합RPC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함)에 장려금도 지급한다. 전국 브랜드 쌀인 프리미엄 호평은 강진군 통합RPC과 계약을 체결해 조곡 40kg(포대) 출하 시 1만원(군 2000원, 농협통합RPC 8000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141ha(2016년 기준 38ha 증가)로 확대 재배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인 일미벼와 신동진벼 두 가지 품종은 1000ha에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곡 40kg기준으로 2000원(군 1000원, 농협통합RPC 1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가 마무리 중에 있다. 2016년과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새일미'와 '새누리'는 미질이 양호해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작전 박산단지에서 32ha의 벼 보급증 채종포 단지 유지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100ha로 확대 조성해 강진군에서 생산된 품종이 농업인에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숲태교 교실' 인기

장흥군이 최근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마련한 숲 태교 교실에 임신부들이 참여해 숲 속 요가를 하고 있다. <사진> 임신 4주에서 34주까지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획된 이번 숲 태교 교실에는 총 10명이 참여해 꽃잎차 시음, 스트레스 검

사, 아기비누 만들기, 명상 및 요가 등을 받았다. 장흥군은 내달 10일에도 우드랜드에서 숲 태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숲 태교 교실 참가 등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61-860-0546)로 하면 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민의 상 김점배 천관교역대표

2017년도 장흥군민의 상 수상자에 김점배(60·사진)천관교역대표가 선정됐다. 김 대표는 최근 열린 장흥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기)에서 인재육성과 지역개발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흥군민의 상(지역개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대표는 장흥출신 출향인으로 현재 오만 한인회장과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 장흥군에 인재육성, 노인복지재단, 4-H후원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1억여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82년 제정된 장흥군민의 상은 매년 5월1일 열리는 군민의 날에 행사 때 수여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주말 야시장' 6월부터 정식 개장

5월 한달간 시범운영

장흥군이 오는 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주말 토요시장 야시장'을 개장한다.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장흥읍 예양교 위에서 토요시장 야시장을 시범운영했다. 이번 야시장은 토요시장의 지역문화와 향토 음식자원을 연결해 장흥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야시장 야외 상점에서는 장흥한우 소시지, 계절해물 파전, 과일 잡철떡,

숯불 막정구이, 불초밥, 한우뺑 등 이색적인 요리들이 첫 선을 보였다. 장흥군은 오는 5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범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은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 6월부터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야시장 운영을 통해 체험된 중앙로 상권과 토요시장을 연결하고 장흥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내달 13~14일 강진 가우도 쥘트랙 레저스포츠대회

강진군이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가우도 해상 하강체험시설 쥘트랙을 활용한 레저스포츠대회를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연다. 주최측은 이번 대회에 참가할 가족단위 80개팀을 2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쥘트랙 레저스포츠대회 참가 신청은 강진 청자촌 오토캠핑장 홈페이지(www.gjcamping.co)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쥘트랙 레저스포츠대회는 강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해상 하강체험시설인 쥘트랙을 이용한 레저스포츠대회는 전국 최초

이다. 대회가 열리는 가우도는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고 올해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관광지 대표 100선에 선정할 정도로 명소다. 지난해 관광객은 73만명이었다. 특히 새해 첫 날 하루 관광객이 1만명에 이르러 남해안 최고 섬 관광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쥘트랙은 가우도 정상에 있는 청자타워에서 출발, 도착지 까지 1km에 이르는 국내 최장의 해상 하강체험시설로 횡단시간은 1분 남짓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700,000,000

| | | | |
|--|---|---|---|
| <p>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p> <p>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평가 6,112,000,000</p> | <p>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p> <p>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평가 1,610,000,000</p> | <p>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p> <p>대지 400평, 건물 329평 최저가 3,304,000,000 감평가 3,406,000,000</p> | <p>광산구 쌍암동 (무인텔)</p> <p>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p> |
| <p>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p> <p>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784,000,000 감평가 784,000,000</p> | <p>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p> <p>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평가 1,059,000,000</p> | <p>운림동 기전빌라</p> <p>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p> | <p>제일오피스텔 29층</p> <p>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p> |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